

# 제주잠수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역동성

한 립 화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특별연구원 · 소설가)

## 1. 제주섬

제주도는 태평양의 동쪽 끝자락에 오도마니 떠 있는 섬이다. 섬에서는 어딜 봐도 바다와 하늘이 맞닿아 그어놓은 수평선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바다와 하늘이 만나 낳은 섬 제주도에서는 그래서 온 세계가 한 눈에 보인다. 저 바다와 하늘에 무수히 많이 그리고 무한대로 열어놓은 길이 있다. 그 길 어느 하나에 발을 얹으면 가고싶은 세상의 어디에나 가 닿는다. 그리고 마음만 먹는다면 평화와 평등이 사람살이 근본이 되는 제주사람의 이상향 <이어도>에도 갈 수 있다.

## 2. 제주의 삶터

제주섬에는 한라산을 가운데 두고 그 발치곶에 웅기종기 들어앉은 5백5십여 개의 크고 작은 자연마을이 있다. 예전에는 제주의 마을이 살아가는 풍습과 의식에 따라 그 성격을 크게 둘로 나누었다. 한라산 중허리의 드넓은 초원의 오름 자락 양지곶에 자리잡은 마을들을 <중산간 마을>이라고 하였다. 이 마을사람들은 밭농사를 짓고 소와 말을 한라산 벌판에 풀어놓아 기르는 것으로 생업을 삼았다.

그보다 훨씬 아래쪽 바닷가에 모여든 마을을 <개촌>이니 <해변마을>이라고 불렀다. 이 마을사람들도 역시 주로 조 보리 등 밭농사를 짓는 한편으로 축산을 하였다. 다만 바닷가 마을의 여성과 소수의 남성이 어로행위로 생업을 꾸렸다.

이 점이 <중산간 마을>과 <해변 마을>을 가름하는 큰 의식의 경계 구실을 하였다. <중산간 마을>에서는 <해변마을>을 점잖지 못하다고 좀 나무라는 경향이 있었다. 왜냐하면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하는 동안 몸에 벤 비린내와 <해변마을>여성인 잠수(혹은 잠녀, 해녀)

들이 바다를 밭과 같이 여겨 여러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하여 아주 간편한 옷차림만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 역겹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가 조선조 5백년을 지나오는 동안 승유사상에 기초하여 나라를 운영한 데서 비롯되었다. 더구나 유교의 원리를 정립한 성리학이 조선사회를 이끄는 중심점이 되고 이를 생활화한 데서 기인한 양반문화의 보편화가 삶에 대한 차별을 가져왔다. 뿐 아니라 남녀가 다르다고 하여 서로 예의를 깎듯이 지켜야 하였다. 그 중의 하나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사는 환경과 날씨에 관계없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의복을 갖추어 입는 것이었다. 또한 여성은 집안에서 살림만 살고 바깥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결로 되어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제주여성, 특히 <해변마을>의 잠수는 특이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 3. 제주잠수

잠수(潛嫂)는 <물질>하는 여성직업인을 일컫는 제주지역어 <잠수>에서 유래된 수산업 협동조합법상의 공식명칭이다. 제주섬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는지 아무도 모르듯이 제주여성이 언제부터 바다를 바다밭으로 일궈왔는지도 알려진 바 없다.

제주섬은 그리 크지 않지만 마을마다 살아가는 풍속이 조금씩 다르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주여성의 삶도 그러하다. <중산간 마을>여성이나 <해변마을>여성이나 강도 높게 일을 하여 가정경제를 꾸려나간 점은 똑같다. 그러나 <중산간 마을>여성은 <물질>을 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1970년대 들어 관광산업과 현대 농·어업과 같은 지금의 제주산업이 정착하기 이전에는 순전히 여성의 노동력, 특히 잠수의 역센 <물질>의 결과에 힘입어 지역생활경제의 상당부분이 꾸려졌다. 제주도는 화산도여서 토지는 척박하고 땅은 비좁아 전통농업이 생존산업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잠수에 의하여 바다자원을 무제한적으로 확보했다는 것은 획기적인 생산체계를 하나 더 갖춘 셈이나 다름없었다. 잠수의 <물질>이 직업적, 집단적으로 조직화되어 이뤄지면서 명실공히 여성노동력 위주의 또 하나의 생업생산체계가 구축된 덕분이었다.

잠수공동체는 나름대로 잠수만의 문화를 창출하여 향유하였다. 사회성 면에서도 위계질서를 존중하고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인정하는 등 보편성과 고유성도 확보하였다. 제주의 바닷가 마을 전역에 잠수공동체가 구축된 점은 제주사람의 삶의 질과 양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잠수공동체는 노동으로 얻어진 경제력을 제주사회에 환원하여 제주사회를 지탱하는 인프라(Infra)구축에도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였다. 1945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에서 해방되자 교육시설인 학교건물 건축비는 물론 운영경비를 조달하였다. 또한 마을공동체를 위하여 봉사하는 무임금 명예직인 이장의 공적 활동비도 쾌척한 것 등이 그 좋은 예이다.

이제 제주섬에는 <중산간 마을>의 삶과 <해변 마을>의 삶이 예전과 같이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해변 마을> 바다에는 잠수들에 의하여 지역사회경제를 운용하던 흔적들이 남아있다. <이장바당>이라든지 <학교바당> 등 잠수의 바다밭 이름에서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 4. 제주잠수공동체와 사회

<불턱>은 잠수가 <물질>을 하는 바다의 갯가 양지뜸에 놓인 노천탈의장을 일컫는다. 그 본래의 뜻은 화톳불자리를 말하는 <화덕>이다. 바닷속에서 얇은 무명천으로 만든 <물옷>만 입고 장시간 작업을 해야했던 1970년까지는 잠수작업장에서 언 몸을 녹이는 화톳불을 피우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

엄연한 의미의 잠수공동체 혹은 <잠수의 세계>는 바로 <불턱>에서부터 비롯된다. 따라서 <불턱>은 잠수공동체의 집합장소일 뿐더러 <잠수의 세계>를 상징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 곳에서 실질적인 잠수공동체가 형성되며 후대잠수에 대한 학습이 이뤄지고 직업이 전승된다. 자맥질을 막 끝내고 <불턱>에 오자마자 아기를 출산하는 잠수도 드물지 않을 만치 잠수들은 <불턱>에서 한 사회인으로 삶을 시작하여 생을 마감하였다.

전통적인 잠수공동체의 의결기구인 <잠수회>이었고 의결방법은 만장일치제를 택하고 있었다. 의견차이가 심하여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했을 때는 대개 최종결정권은 그 지역 잠수공동체의 최고참자인 <웃어른>이 내리는 결론에 절대적으로 동의하였다. <웃어른>에게 부여된 그 절대적 권한의 이면에는 잠수공동체가 전적으로 인정하고도 남을만한 잠수로서 존경받아 마땅한 고귀한 삶을 살았기에 잠수 누구나에게 귀감이 되는 까닭에서였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어촌계라는 준행정 조직이 있어 그 법규에 따라 행하여지고 있다.

## 5. 제주잠수공동체와 문화

제주잠수들은 1980년 초기까지 어한기인 음력 3월 말 경부터 추석 전까지 타지역으로 <출가물질>을 정기적으로 다녔다. 출가물질을 통하여 잠수공동체는 오랜 세월 동안 유교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여성의 행동반경을 제한하고 통제하던 굴레를 벗어나는 과감한 제주여성문화를 탄생시켰다. 출가지를 오가는 과정은 일종의 신나는 여행이었다. 출가잠수들은 출가물질 기간에 견문을 넓히고 자유를 구가하고 미지의 세계를 관광하고 탐구하고 새 생활을 개척하는 발판으로 삼았다.

또한 지금의 우도면인 소섬의 출가잠수들은 출가지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들을 한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입양하거나 위탁을 받아 돌봐주는 풍습이 있었다. 소섬은 유인도가 된지 이제 막 1백 년의 역사를 지닌 곳으로 잠수의 불굴의 개척정신이 일궈낸 보물섬이나 다름없는 제주섬 중의 섬이다. 역사적으로나 사회구조적으로 잠수의 사회참여도가 상당히 높은 또하나의 섬이 가파도이다.

소섬과 가파섬은 일찍이 개화하여 일제강점기에 이미 신학문에 의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 학교를 세운 곳이다. 따라서 일제강점기에 일어난 <제주도잠수(혹은 잠녀나 해녀)항일항쟁>의 주도역할을 한 격전지가 우도라면, 가파도는 스스로 배출한 가파도 출신 지식인들을 그 항쟁에 지원세력화하였다. 이러한 예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잠수공동체는 이상향 <이어도>를 저 멀리 바다너머에 그냥 놔두지 않고 바로 제주섬에 실현하려 노력하였다.

## 6. 두 개의 곳, 잠수공동체의 祝祭

음력 이월이면 제주섬에는 마을마다 <영등굿>을 한다. 영등굿은 이월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두 주간에 걸쳐 치러졌던 굿으로 일종의 봄맞이축제, 즉 봄바람 신(神)인 <영등>을 맞이하는 행사이다. 봄바람이 부는 때와 굿이 행하여지는 기간이 정확히 일치한다. 농경사회(農耕社會)에서는 봄이 오는 소리가 매우 중요하였다. 밭 갈고 씨뿌릴 나날과 날씨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음력(陰曆)정월(正月)부터 삼월(三月)에 걸쳐 순전히 잠수들만이 또한 차례 제의를 치르는데 <잠수굿(일부에서는 해녀굿이라고도 한다)>이 그것이다. <영등굿>과 굿의 성격이나 제차(祭次)가 다르지 않으면서 잠수에 의하여 주도되는 굿을 <잠수굿>이라고 한다. <잠수굿>이 <영등굿>과 다른 점은 철저하게 잠수공동체의 축제이면서 또한 그 공동체가

차린 지역민을 위한 잔치마당이라는 데에 있다. <잠수굿>이 행하여지는 날은 그 마을 모든 주민이 잠수회의 손님으로 초대된다.

잠수의 제의에는 늘 <저 디(곳)>에서 살고 있을 죽은 자를 위한 의(衣)와 식(食)을 제공하는 순서가 있다. 잠수공동체는 의례(儀禮)를 통하여 산 자와 죽은 자가 <한술밥을 먹는다>는 공생(共生)의 사생관(死生觀)을 가진다. 잠수세계에는 현세가 매우 비중 있는 공간으로 부각되어 있다. 죽어 좋은 데 가서 잘 살기를 원하기에 앞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잘살기를 바란다. 그래서 잠수의 일상은 매우 억척스럽다. 풍요로운 바다만 있으면 생을 꾸리기에 넉넉하므로 그런 바다를 염원하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것이다. 제주바다는 잠수가 바다밭을 일구고 있어서 남다르게 풍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 **The Sociocultural Meanings and Dynamics of Jamsu on Jeju Island of Korea**

RimHwa Han

(Institute for Peace Studies, Cheju National University)

Email: [kflower@chollian.net](mailto:kflower@chollian.net)

## **1. Jeju Island**

Jeju province is land so-called *leodo* as an utopian world in legendary terms, thus a fantastic island as actual tourist resort area where is located in the northwestern Pacific Ocean off the Southern tip of the Asian mainland's Korean peninsula. The island is 281 miles from Korea's capital city, Seoul. On top of Halla Mountain with height of 6,397 feet, Jeju Island is so visible to any direction due to geographical openness to endless sea. Thus, Jeju land holds the restless vast space beyond mutual juxtaposition of heaven and sea, where may be possible to reach any places if we step into over there. Due to its great natural beauty and landscape (e.g., stones, valleys, waterfalls, beaches, islets/scenic coasts, parasitic cones, etc.), Jeju island is full of treasures in nature. Further, diverse historical legacy with ancient myths and legends casts another cultural significance in modern society as a whole. The rich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of Jeju Island seems to reflect *leodo* world as a utopian society perceived among Jeju people who have strongly desired to actualize freedom, peace and equality as human virtue in reality.

## **2. Life Space of Jeju People**

Like Korean traditional village, Jeju consists of small/medium-sized five hundreds fifty natural villages around Halla mountain. In the past period, there were notable differences in

topography, history, custom, and lifestyle among Jeju people. The village type located in the middle of Halla Mountain is referred to as '*Jungsangan* village' characterized by wide vistas of mountainous terrain with some 360 mysterious primeval 'parasitic' volcanic cones. People in these villages had primarily been engaged in dry-field farming (e.g., barley, wild sesame, bean, potato, sweet potato, millet, etc.), including the livestock farming nurturing horse and cattle, and so on. On the other hand, the seaside village with a much-indented coastline is also wrapped with dry field-based farming and livestock farming. More interestingly, some households in the seaside were involved in fishing enterprise for living.

As far as the behavioral style was concerned, *Jungsangan* villagers thought that seaside people might be less flexible and amenable, but active and solid. It could be that fisherman was always exposed to bad smell committed to fishery works. And *Jamsu*, a woman skilled-worker who harvests diverse seaweed and marine products, tended to give bad image due to semi-naked clothing style while working under the sea. This social image construction is somewhat originated in strongly-rooted Confucian culture reinforcing male-dominated patriarchal system, a social ideology which has sustained over 500 years of *Joseon* dynasty. Under Confucian society with strong patriarchal values and practices, as well as *Yangban* culture (so-called semi-feudal system), there existed ubiquitous social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even in association with their clothing styles, who should cover the whole body from head to toe. This traditional social prejudice against Korean woman was inevitably applied to *Jamsu*. In the seaside village of Jeju Island, it is likely that *Jamsu* is a critical social sector necessary for figuring out sociocultural diversity (e.g., social function and role, unique behavioral characteristics, value and consciousness, etc.) of Jeju woman.

### 3. Jeju *Jamsu*

*Jamsu* is a professional woman who has worked in the sea as either a part-time or full-time job. The formal name of *Jamsu* today is legally regulated in its linguistic expression by Fishery Corporative Association. There is no clear-cut evidence on when many Jeju women as a *Jamsu* started to cultivate and harvest many kinds of seaweed's and marine products in the sea, such as the fact that nobody knows historical origin of human settlement in Jeju island.

Most Jeju women both in mountainous and seaside village were shouldered to heavily loaded labors for revitalizing the household economy that had almost remained the poverty line.

With the emergence of 1970s in Jeju province, the rapid development of tourist industry and modern farming/fishery enterprise became a significant economic sector for Jeju people, thus resulting in undermining Jeju women's socioeconomic roles and functions, particularly *Jamsu's* socioeconomic contribution to sustaining the household and local economy. Since Jeju's land is not fertile for farming due to volcanic traits in topography, a traditional farming system as survival strategy was no longer plausible to many villagers. Instead, related to utilizing various marine resources (i.e., seaweed, fish, abalone, octopus, conches, and so on) for family income creation and food provision, an vocational production system organized by *Jamsu* had been mainly operated by woman-centered labor supply.

#### 4. Jeju *Jamsu* community and society

*Bulteok* is a fireplace for *Jamsu* to change their suits in the warm site after she worked under the sea. Such a fireplace in the shore for her health was essential to melt almost frozen body after long-time labor under the sea wearing a white, single-piece cotton suits until the 1970s. Strictly speaking, *Jamsu's* social community actually begins with social meeting around *Bulteok*, further symbolizing the world of *Jamsu* as a public space. Within this social space, most *Jamsu* can have some opportunity to exchange and discuss individual and/or public issues (e.g., neighbor or village accidents/events, children rearing and education, marriage, health, cooking, caring parents, diverse projects of *Jamsu* community, etc.). Furthermore, *Bulteok* has provided socially meaningful space to learn how to become *Jamsu's* new comers, to improve some techniques for a more skillful expert as *Jamsu*, and to observe the vocational succession from one generation to next one as well. Finally, for some *Jamsu* who had either a baby delivery or death around *Bulteok*, it symbolizes the beginning or the end in human life.

As noted, a public meeting around *Bulteok* is in association with decision-making. The traditional formal decision-making institute in *Jamsu* community was *Jamsu* Association whose decision making was substantively based on unanimous vote system. If there is no consensus

on unsolved controversial problems among members, final judgement and decision is exclusively made by the eldest *Jamsu*. Then, her decision-making clout holds that her enduring life as a *Jamsu* echoes so respectful and honorable exemplar to other members in regard to her attitude, behavior and leadership in *Jamsu* community. Since 1970s, however, this decision-making system based on unanimity was now transferred into Fishery Village Association as semi-administrative institute, thus operating in terms of legal rules.

This *Jamsu*'s labor-based production system further extended into social formation of sociocultural value and consciousness, thus leading to their unique sociocultural community. The extent of social solidarity and integration among *Jamsu* members was so strong as much as they can sustain internal hierarchical order, while encouraging to visualizing achievement-oriented modern values in their labor process. The *Jamsu*'s community as economic and social network system organized in the seaside village as a whole had greatly influenc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n Jeju Island. In particular, some economic investment engendered by *Jamsu* community was remarkably exerted to install social infra facilities in monetary terms. For example, with national liberalization from Japanese colonial domination in 1945, *Jamsu* community in Jeju seaside village conducted social donation for appropriating various expenses (e.g., school management, school building installation/renovation, etc.), including economic rewards for the village head who usually served for the village without any kinds of payment. In this socioeconomic context, either so-called village head's sea or school sea remained even today.

For example, the *Jamsu* of *Soseom* (i.e., small islet) showed a challengeable and pioneering spirit. In addition, *Gapa* islet's *Jamsu* was similar to that of *Soseom*. Both *Soseom* and *Gapa* islet was one of frontiers to open its internal culture and locality to the world, and further to install formal education institute favorable to the western disciplinary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domination. In end, *Soseom* was the primary place to have played a major role on resisting against Japanese oppression, while some intelligentsia from *Gapa* islet also became resistant forces. This historical legacy of *Jamsu* community in these islets reflects a possible rise and building of utopian society in Jeju island, in accordance with legendary myths and world of *Jeodo* that would make it possible to accomplish human dreams in society as a whole.

## 5. Jeju Jamsu's Delocalization

It is until early 1980s that Juju *Jamsu* migrated into other regions in the period from late March to Korean Thanksgiving Day (i.e., *Chuseok*) in lunar calendar, in order to perform her vocational enterprises in the sea. This type was a migrating job performance, so-called *Chulgamuljil*, in the basis of regular period. Through *Chulgamuljil* among *Jamsu* members that was individually selective in its decision, they may have an opportunity to take off some traditional Confucian consciousness coupled with customary prohibition for women's long-term travel away from hometown, thus stemming from male-dominated ideology against woman suppression and subordination. It seemed that such *Jamsu's* temporal migration for her job performance in other regions was a social opportunity to increase household income, to experience the diversity of non-Jeju culture and social customs, and to have a relaxed time for herself.

As a typical example, some migrating *Jamsu* of *Soseom* (i.e., small islet) in Udo *Myeon* (i.e., county unit in administrative district) adopted or reared a child who was born in the extremely poor household of other regions, where they already migrated for labor engagement in the sea (so-called *Muljil*). Either adoption or rearing for those children was temporal or permanent.

## 6. Jeju *Jamsu's* Cultural Domains: Two *Guts*

Jeju is an island full of stories of Gods. There are 18,000 Gods who descended from heaven, sea and even the earth. Understanding Gods-related myths and shamanism of Jeju is a critical thing to explore the island in itself. The *Gut* is a kind of shaman's performance to bring out, make entertain, and worship Gods in Jeju Island. For *Jamsu*, the *Gut* performance is a social ritual ceremony or festival that she prays for her health, family well-being, and safety in the sea, as well as labor productivity increase in fishery works. It also functions to relieve pain and sadness herself coming from personal and/or family problems (e.g., disease, marriage, death, domestic violence, poverty etc.), along with well-arrangement and resolution of controversial issues, and socioeconomic prosperity both in *Jamsu* community and in village.

There was *Yeongdeung Gut* in most villages of Jeju. *Yeongdeung Gut* was carried out to welcome the rise of spring for two weeks from Feb. 1 to Feb. 15 in lunar terms. It was a festival to entertain that the spring is coming out, thus which means that embrace *Yeongdeung* called God of spring wind that presides over the seas and fishery. Interestingly, the period to see initial rising of spring wind is almost similar to that of *Yeongdeung Gut* performance. In farming-centered societies, the spring is a socially critical point in preparation of sowing and cultivating on road to maturing in summer, and further harvesting in fall season.

Like *Yeongdeung-Gut* in shamanistic features and worship procedures, *Gut* led by *Jamsu* is *Jamsu-Gut*, thus a festival for *Jamsu* community and villagers, which is usually performed between January-March in lunar terms. Then, for entertaining such a festival, all residents in the village are invited. In *Jamsu-Gut*, there is a ritual ceremony to pay tribute (i.e., clothes and food) to those who were dead in the sea and simultaneously who might live in the world beyond. By performing *Jamsu-Gut*, *Jamsu* community is likely to have strong solidarity and symbiotic relationship in terms of mutual soul conjunction between living and death. In *Jamsu* world, the present life is much more stressed than that of the world beyond. Thus, it is likely that *Jamsu* makes an enormous effort to improve her economic condition toward life well-being and prosperity no matter what she is doing. For *Jamsu*, it is seemingly perceived that everyday life is a process in dealing with enduring hardship, but the sea is a fruitful meadow to make secure her life and even Jeju people.

**The First World Jamnyeology Conference**

**第1回 世界潛女學術會議**

**제1회 세계잠녀학술회의**

## **Values of Women Divers and their Cultural Heritage** **해양문명사에서의 잠녀의 가치와 문화적 계승**



Date: June 9-11, 2002

일 시: 2002년 6월 9일-11일

Place: Jeju Grand Hotel, Jeju City, Jeju Island, Korea,

장 소: 제주그랜드호텔

Hosted by Jeju Provincial Government

Organized by World Association for Island Studies (WAIS) and  
the Institute for Peace Studies, Cheju National University

Sponsored by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주 최: 제주도

주 관: 세계섬학회 ·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후 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